전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TF' 가동

21일~9월 12일 1차 신청 접수… 신청 초기 요일별 5부제 운영으로 혼잡 최소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전주시민에게 1인당 최대 53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원활한 신청과 조속한 지급을 위한 TF팀을 본격 가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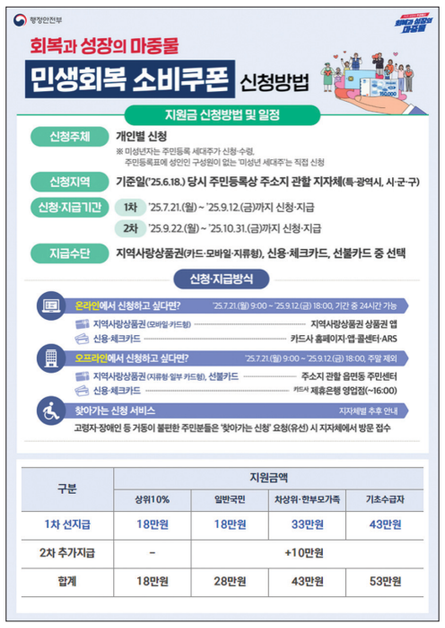
전주시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과 오프라인(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차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동시에 도모하는 맞춤형 지원대책이다.

시는 신속한 준비와 탄탄한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소비쿠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초기 몰림에 따른 민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은 첫째 주(7월 21일~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둘째 주까지로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전주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충전의 경우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하고 선불카드는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



구분	지원금액			
	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18만원	18만원	33만원	43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계	18만원	28만원	43만원	53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신청은 전주시에 주민등록(6월18일 기준)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시민이면 누구나 개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차분 민생 소비쿠폰 지급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소득수준 및 사회적 배려 계층 여부에 따라 △기초수급자 43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3만 원 △일반시민 18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소비쿠폰은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시민을 대상으로 2차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차분과 2차분 소비 기한은 11월 30일이며, 사용기한 내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조치 된다.

시는 원활한 소비쿠폰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사업총괄 △현장 지원 △홍보전산지원의 3개반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TF는 선불카드 지급을 위한 주민센터 장비구축 후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현장에서 시연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34개 동 주민센터에 기간제 인력과 전산장비 등을 보강해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고,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민생지원으로, 직접적인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국번없이 110)나 전주시 전용 콜센터(063-281-8731~8737), 각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도서관서 인문학 지식 나눈다

전북대 인문대학 교수진 · 외부 강사 등 인문학 강연 운영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진이 도서관을 찾아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연에 나선다.

전주시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10개 시립도서관에서 전북대학교와 연계한 '전주시 도서관 지식플랫폼: 정통과 디지털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과의 공감 및 지식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소속 교수진과 외부 강사 등 총 25명이 참여해 10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주제로 강좌를 이어가게 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15일 인후도서관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강연은 김상득 철학과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이어 △윤석민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한글, 아름다운 말 바르게 사용해요!'(16일, 송천도서관) △김요한 철학과 교수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19일, 삼천도서관)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심리학과 역사 등 다양한 인문 분야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적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집중호우 피해 예방 · 볼런티어 활동

희망의샘 안전봉사대(이사장 유춘열)는 지난 12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송천 우수저류시설 상부 제초작업과 빗물받이 등 주변 대청소 등 집중호우 피해 예방·볼런티어 활동을 벌였다.

이날 집중호우 피해 예방·볼런티어 활동은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송천동 우수저류시설 등 2곳에 대해 평소 수해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을 꼼꼼히 살펴봤다.

또한 상인들에게 올여름 장마 기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받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와 비닐 커버 씌우지 않기 등의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전주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 자율방재단과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기적인 도매시장 환경을 점검, 안전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폭염 대비 시민 안전 최우선"

우범기 전주시장, 무더위쉼터 · 버스정류장 등 현장점검

우범기 전주시장이 폭염에 대비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4일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평화동 평화주공그린2차경로당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평화코오롱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을 잇달아 방문해 폭염 대응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시가 무더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무더위쉼터와 버스정류장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폭염에 대비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우 시장은 무더위쉼터인 평화주공그린2차경로당에서는 냉방기 작동 상태와 음용수 비치 여부, 이용자 현황 등을 세심하게 살폈다.

우 시장은 또 현장에서 쉼터를 이용 중인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설 내 불편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무더위쉼터 이용자들에게 폭염이 지속되는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무더위쉼터 등 시에서 마련한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 시장은 그린통합쉼터로 운영 중인 평화코오롱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찾아 냉방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살피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권희성 기자

서신초 학생들, 어려운 이웃 위해 나눔 행사 수익금 기부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이 나눔 행사를 열고 행사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전주서신초등학교(교장 이난경) 학생들은 지난 14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학생들이 나눔 행사를 통해 직접 마련한 성금 84만4,020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서신초등학교의 유대영 교감과 담당 교사, 학생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앞서 전주서신초 학생회가 주최한 교내 행사인 '서신당근마켓(벼룩시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과 기부금이다.

/권희성 기자

호성동 지사협, 냉감이불 지원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정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창호)는 14일 폭염에 취약한 대상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 독거가구 20세대에 냉감이불 세트(매트, 이불, 베개, 베개솜 포함)를 지원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냉감이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호성동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홀로어르신 및 장애인 세대 등 무더위에 취약한 20세대를 대상으로 시원한 냉감이불 세트를 전달하여 열대야를 예방하고 건강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계절 맞춤형 특화사업 중 하나인 '건강한 여름나기! 냉감이불 나눔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주관하여 대상자 선정부터 물품 전달까지 전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냉감이불 세트 전달과 함께 폭염 대응 요령도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복지지원을 펼쳤다.

/권희성 기자